

결실의 달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회개는 영혼이라는 발을
경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발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의 씨앗은 더 잘 자랍니다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October 23,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2:9 “하인들은 안다.” 말씀선포 / 허성근 목사 결단의찬양 /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김훈테 집사, 유동숙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가 348장)
삶과 세상으로	* 찬 양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축복기도 / 허성근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찬양과 간증

주일 오전 11:00-12:15

허지운 사모

“몽골의 광야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0월 “결실의 달”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고,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라.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선교주간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 찬양집회/찬양사역 세미나 금요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찬양과 감사,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강사: 허성근 목사 / 허지윤 사모)
- Picnic을 다음(10/30) 주일에 가집니다.
주일예배 오전 10:00 (장소: 지하 친교실)
잠정 목적지: **Matthiessen State Park**
- 정기 제직회 사역 보고 준비해 주십시오. 11/6 (주일) 오전 11:00
- 가정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과 직장, 자녀, 가족의 평안과 건강)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 - (1) 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2) 주일 오후 8시-9시 30분
(3) 화요일 오전 10시-11시
말씀 공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 10월의 사역 - 찬양집회/찬양사역 세미나(21-23)

선교 주간(23-29) 선교주일 / 피크닉(30) 제직회(11/6)

기도제목

- 학생들의 학업과 전 인격적인 성장
-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 건강과 평안
-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천국을 향한 소망과 평안
- 교회 사역의 변화와 건강한 성장
- 중고등부 전임사역자 청빙과 Youth Ministry 성장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0/23	10/30	11/6	11/13
	최선운집사	구 민집사	최내권집사	구은강집사
주일헌금위원	10/23	10/30	11/6	11/13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오정은집사/유덕하집사		
주일안내위원	10월		11월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에바다” - 열려라! / 마가복음 7:31-37, 8:22-26

영적 장애는 육체의 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과 문제가 된다. 예수님은 고통 받는 자와 함께 짐을 져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귀먹고 혀가 어눌한 장애인과 눈먼 장애인의 닫혔던 기능을 열어 주셨다. 이방이과 눈앞의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도 이와 같은 장애가 있음에 다름이 없었다. 그들이 회복될 때, 누군가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셨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닫혔던 것을 완전히 열어 주셨다. 이런 “에바다”(열려라)의 축복은 지금도 유효하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를 열면, 이웃과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도 열린다. 소통이 온전해 지며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세상과 이웃과 향해 마음을 넓게 열고, 축복(복음과 기도)의 통로가 되자.

토요 아침 예배

October 22, 7:00am

찬양

-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잃이라
-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성경말씀: 마가복음 5:28

묵상제목: “손을 뻗자” / 허성근 목사

찬양

-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개인 기도)

성도의 교제와 축복의 시간

묵상노트

인도: 허성근 목사 / 허지운 사모

찬 양

-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온 힘 다해
-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 날이 저물어 갈 때
- 나의 기도하는 것 보다
- 모든 상황 속에서
-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말씀 선포

성경말씀: 이사야 41:10

묵상제목: “**쫓지 말자**” / 허성근 목사

찬 양

- 안개 속에서 주님을
- 따스한 성령님

묵 상 노트

말씀과 찬양으로의 초대

10 여년 간 몽골에서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찬양을 통해 현지 젊은이들을 복음화하는 사역에 힘써 오신
선교사 허성근 목사 부부가 안식년 기간 중에 섬김의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 간증의 시간을 가집니다.
식었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집시다.

찬양예배 / 7-21(금) 저녁 7:30

토요일 아침예배 / 7-22(토) 아침 7:00

찬양 워크샵 (1) / 7-22(토) 오후 3:00

선교 간증 / 7-23(주일) 오전 11:00 - 12:15

주일예배 / 오후 12:30

찬양 워크샵 (2) / 주일 오후 3:00 - 5:00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만 믿으면 못 갑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갈수 있다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만나 보셨습니까?

만나지 않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확신은

학습되어져서 세뇌되어 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를 만나 믿게 된 것입니까?

BEST CHOICE

당신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보았습니까?”

-허성근 목사 -

기독교 인구 2%의 나라 몽골, 선교지에서 날아온 선교 후원국을 향한 축복

허성근 선교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녹음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의 몽골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담아 직접 가사와 곡을 쓰고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고,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두 개의 풀 앨범이 제작되어 자국 내에서 발표되었으며, 초원의 끝 곳곳의 시골교회들까지 그들이 만든 찬양이 널리 퍼져 있음이 수차례 전도여행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역이 진행되면서 몽골 뿐만 아니라 주변을 축복하라는 마음 속 울림에 결정된 선택지는 다름 아닌 지금까지 몽골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던 한국교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어로 앨범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앨범 Stepping Stone 한국어 판).

허성근, 허지윤 선교사 부부는 안식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다음 광야로 나아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몽골 청년들의 찬양 예배 모습



몽골 찬양사역팀과 허성근 선교사(앞 줄 가운데)

신앙묵상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거룩함과 사명을 주신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남들이 하니까, 주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안 하면 찝찝하니까... 고작 이런 정도의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면, 자기만족을 위한 미신행위와 별반 다를 게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예배 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분과 교통하며, 그 분의 뜻을 알기 위한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세상과 구분되려는 우리의 믿음과 절제는 오히려 더 미련한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세상사람들 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전 15: 19)

또한, 찬양은 우리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한다. 찬양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마귀를 공격하여 무찌르는 칼이기도 하다.

찬양은 영적으로 탈진해 맥이 빠질 때, 새로운 영적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찬송하며 기도하라. 기도가 새로운 힘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



“나의 생전에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46:2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8:0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TUES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